

우리는 정말 새로운 것에 열려 있는가?: 초등영재들이 인식하는 반창의성 편향

이 태 희

인천대학교

한 기 순

인천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반창의성 편향에 대한 초등학교 영재아동들의 인식을 개념도방법을 활용하여 밝히고, 도출된 요인들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는 정도를 탐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2명의 초등학교 영재아동들이 반창의성 편향에 대해 집단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종합, 분류하는 활동을 통해 55개 최종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이들 55개의 진술문에 대한 비유사성 평정 자료를 사용하여 다차원적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2차원 개념도 제작에 적합한 stress 값 .30이 도출되었다. 또한 132명의 초등학교 영재아동들을 대상으로 각 진술문의 공감 정도를 likert 6점 척도로 표시하게 한 후, 반창의성 편향에 대한 초등학교 영재아동들의 공감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도에 나타난 진술문의 좌표 값을 기초로 하여 위계적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반창의성 편향에 대한 초등학교 영재아동들의 인식의 범주는 ‘창의성에 대한 모순적 태도’, ‘창의성에 대한 낮은 평가’, ‘정해진 규칙과 생각에 대한 강요’, ‘새로운 것에 대한 반감’의 4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교 영재아동들은 ‘정해진 규칙과 생각에 대한 강요’(M=4.16), ‘새로운 것에 대한 반감’(M=3.68), ‘창의성에 대한 모순적 태도’(M=3.55), ‘창의성에 대한 낮은 평가’(M=3.30) 범주 순으로 공감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3.68의 공감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반창의성 편향에 대한 초등학교 영재아동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창의성 교육의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초등학교 영재아동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관련 요인들을 범주별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 결과와 관련된 현장에서의 함의가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주제어: 초등학교 영재아동, 반창의성 편향, 개념도, 영재교육, 창의성

I. 연구의 필요성

‘창의의 시대’로 표현되는 21세기, 사회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창의적 인재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양한 학문과 기술들이 융합되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사회에서 미래에 마주치게 될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이끌어내어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김명숙, 2001; 김순남 외, 2003; 성은현 외, 2008; 임선하, 2007; 전경원, 2000; 한기순, 2005). 이렇듯 창의성은 개인, 조직,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바탕이 되는 필수 요소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창의적 인재의 육성은 이미 도래한 지식 기반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창의성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조연순, 정지은, 2012; 한기순, 김홍희, 2011), 창의성을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갖추어야 할 학습자 필수 역량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2009년을 ‘유럽 창의성과 혁신의 해 (European Year of Creativity and Innovation)’로 선포한 바 있으며 국제연합(UN) 또한 「2010 창조경제 보고서」에서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을 분석하고, 창의성, 지식, 문화, 기술이 일자리 창출, 혁신, 사회통합을 주도할 요인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창의성 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창의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a, 2010b, 2010c;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이 사회의 개개인들은 창의성을 매우 갈망하고 창의적인 사람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대단히 존중될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동의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Mueller와 그의 동료들의(Mueller, Melwani & Goncalo, 2012)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은 창의성을 진정으로 열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은 목표로서 창의성을 지지할 때에도 종종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이른바 반창의성 편향(anti-creativity bias)을 보인다는 주장이다. 창의성은 불확실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하기를 거부하고 위협감을 느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이춘근(2007)은 ‘이런 상사가 창의성을 죽인다’라는 제목으로 창의성을 저해하는 상사의 6가지 유형을 소개한 바 있다. 창의성은 기업의 경쟁력을 가능하는 결정적인 힘이므로 관리자들은 개개인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창의성을 기업의 목표로 추구하면서도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이끌지 못하는 것은 창의성을 지지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반창의성 편향의 단면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요로다케시(2003)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독창성과 개성이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할 때 옆 사람의 안색을 열심히 살피기 바쁘며, 남과 다른 것을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남과 다르게 행동하지는 못한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시스템과 문화 속에서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Sternberg, 1995)인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을 것인가의 이슈는 그리 간단하지 않으며 개인적 역량만큼이나 사회문화적 풍토와도 직결된다.

창의성을 발전시키고 지지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창의성에 대해 거부하는 반창의성 편향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면 창의적 역량의 계발과 창의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반창의성 편향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그 전제 조건일 수 있다. 지금까지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 방법 및 프로그램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반창의성 편

향에 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실정이다(전경원, 2000; 최석민, 2006; 한기순, 유경훈, 2013; Kegan & Lahey, 2001; Staw, 1995). 그 한 예로, Mueller, Concalo와 Kamdal(2011)은 최근 회사의 직원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잠재적 리더십 역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창의적인 사람일수록 잠재적 리더십 역량은 부정적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Mueller, Melwani와 Goncalo(2012)는 평균나이 22.74세인 참가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창의성 편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창의성에 관한 부정적인 편향을 입증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이전에는 교사가 창의적인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Cropley(2009)는 교사들은 창의적인 학생들에게 반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Westby와 Dawson(1995)은 교사가 창의적인 행동들을 싫어하여 학생들의 창의성이 소멸되도록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들은 회사의 직원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학생에 대한 교사의 반창의성 편향이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만을 보고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과 관련하여 보다 전방위적이고 심층적으로 반창의성 편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음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다.

한편,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영재교육이다. 창의성은 영재성의 핵심 요소로서 영재들은 특정 영역에서 창의성을 발휘한다(Renzulli, 1978; Runco, 1992, 2010; Runco & Pritzker, 1999; Sternberg & Lubart, 1995). 앞서 제시했던 반창의성 편향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면,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영재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시도할 때, 반창의성 편향이라는 감춰진 장벽에 직면하여 좌절을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단위학교 영재학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영재교육진흥법 2조에 따라 국가에서 초등학교부터 영재학급을 설치하여 영재아동들을 관리하고 있다. 창의적인 성향이나 창의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영재학생들은 Mueller 등이 제기하는 반창의성 편향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과 인식을 갖고 있을까? 이 연구는 이러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초등 영재아동들과 영재아동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서 인식되는 반창의성 편향에 대한 연구는 창의성 계발과 창의문화 풍토조성으로의 사다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영재아동들의 생각과 경험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영재아동들이 진술하는 반창의성 편향에 대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결합한 개념도 연구(concept mapping)법을 적용하여 보다 현장감 있게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개념도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수의 영재아동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영재아동들이 반창의성 편향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창의성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탐색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반창의성 편향에 대한 초등학교 영재아동들의 인식의 개념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반창의성 편향의 관련 요인들에 대한 초등학교 영재아동들의 공감 정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영재아동의 반창의성 편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남녀 각각 6명으로 총 12명의 영재아동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Johnsen, Biegel, 그리고 Shafran(2000)은 개념도 제작에 있어 초점집단은 보통 10~20명 정도로 구성된다고 하였고, Kane과 Trochim(2007)도 유사하게 단일 개념도 제작에 있어서 초점집단은 일반적으로 10~20명 정도로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Kane과 Trochim(2007)의 개념도 연구 방법론에 의하면 이 초점집단의 역할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것, 둘째는 이를 분류 평정하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12명의 학생을 초점집단으로 하여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한 후, 이를 분류 평정하는 일을 하였다.

이 단계에서 도출된 진술문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영재아동의 반창의성 편향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설문 단계에서의 연구 대상은 단위학교 영재학급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149명이었으며, 그 중 응답에 불성실한 설문지 17부를 제외한 13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1> 설문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영재아동

성별	학년	사례수(%)	
남	4학년	19(14.4%)	72(54.5%)
	5학년	25(18.9%)	
	6학년	28(21.2%)	
여	4학년	14(10.6%)	60(45.5%)
	5학년	20(15.2%)	
	6학년	26(19.7%)	
계		132(100%)	

2. 연구 절차

초등학교 영재아동들의 반창의성 편향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고자 개념도 연구법을 채택하였다. 즉, 초등학교 영재아동들이 반창의성 편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개념도를 통해 알아보고, 그들이 이 진술문들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공감도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Kane과 Trochim(2007)이 제시한 개념도 과정 절차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윤정 외(2007)는 Kane과 Trochim(2007)을 재구성하여 개념도 과정 절차를 <그림 1>과 같이 나타내었다.

첫째 단계는 개념도를 위한 준비단계이다. 인천광역시 내의 초등 단위학교 영재학급에 재학 중인 12명을 집단으로 구성하였고,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관련 아이디어를 산출하기 위한

초점 질문(focus question)을 준비하였다. 초점 질문은 다음과 같다. “‘반창의성 편향’이란 것으로는 창의성을 좋아하고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마음 속 진심은 창의성을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반창의성 편향의 상황이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적어주세요.”

1단계 개념도 준비	초점 질문 또는 연구 문제 구체화하기, 연구 참여자 선정하기
2단계 아이디어 산출하기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연구 참여자로부터 아이디어를 산출한 후 종합하기
3단계 진술문 구조화하기	연구 참여자 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진술문들을 분류, 평정하게 하기
4단계 개념도 분석하기	다차원 척도(MDS: Multidimensional analysis)와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여 개념도 만들기
5단계 개념도 해석하기	원 자료의 진술문들을 바탕으로 지도 위에 나타난 진술문들의 관계를 해석하기
6단계 개념도활용하기	활동의 계획과 평가(예: 측정 도구 개발)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기

[그림 1] 개념도 전체 과정(Kane & Trochim, 2007; 최윤정, 김계현, 2007)

두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산출 단계이다. 초등학교 영재아동들의 반창의성 편향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기 위하여 영재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12명이 집단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반창의성 편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산출하였다. 참여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만 있다면 브레인스토밍 방법은 그룹 상호작용을 통해 과제에 집중할 수 있고, 짧은 시간 내 효율적으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Kane & Trochim, 2007). 이 연구에서 브레인스토밍 회기는 연구자가 진행하였으며, 연구진행은 30분~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을 먼저 설명한 후, 준비한 초점 질문(focus question)을 연구 참여자에게 제시하여 진술문을 생성하게 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영재아동들의 반창의성 편향에 대한 인식 요인으로 78개가 생성되었다. 하지만 중복되는 아이디어나 일부 진술이 불분명한 아이디어가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고 종합, 편집하였다. 첫째, 중복 아이디어는 하나로 통일하고 둘째, 불분명한 아이디어는 제거하거나 명료화하며 셋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카드 분류 작업을 실시한다는 기준이다. 이때 가능한 아이디어는 원래 뜻을 유지하도록 수정을 최소화하였으며, 이 기준을 토대로 55개의 최종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Trochim(1989)은 대략 80~100개 정도의 핵심문장들이 적당하다고 하였고, 최근의 연구들(최윤정, 김계현, 2007; 최한나, 김삼화, 김창대, 2008; 최한나, 김창대, 2008)에서는 약 40~60개 정도의 문장 수가 적당하다고 보고하였다.

세 번째는 진술문(statements)을 구조화하는 단계이다. Paulson & Worth(2002)는 모든 진술문은 둘 이상의 파일로 나누어 분류하고 각각의 문항은 하나의 파일에만 분류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최종 진술문을 카드로 만들어 12명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배부한 뒤, 연구 참여자들은 진술문의 유사성을 통해 분류하게 하였다. 이러한 분류 작업이 끝난 후, 각 파일에 들어 있는 진술문의 내용을 기초로 각 파일에 가장 적당한 제목을 정하여 기록하였다. 이 단계에서

진술문 분류 결과를 개념도 분석을 위한 다차원 척도의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네 번째는 개념도(concept mapping) 분석 단계이다. 개념도 작성을 위하여 SPSS/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sional scaling)과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차원 척도법 분석을 통해서 좌표 위에 개별적인 진술문들을 점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다 더 빈번하게 같은 것 끼리 묶인 진술문들은 서로 가까이 위치한다. 어떤 군집에 포함되어 있는지 두 개의 문장이 한 군집에 포함되었을 경우 1점, 그렇지 않는 경우 0점을 부과하였다. 총 12개의 유사성 행렬(55×55)을 만든 후, 다시 역코딩하여 비유사성 자료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12명의 파일을 합하여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분석을 통해 얻어진 개념도에 나타난 점들의 범주를 구분하기 위해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나타난 x, y 좌표 값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 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의 수는 나타난 덴드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나타난 군집에 대한 명명은 좌표 상에 표시된 진술문들의 상대적 위치, 범주에 묶인 진술문 내용을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군집의 군집명은 초점집단 연구 참여자들이 도출한 제목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작성된 개념도를 근거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각 진술문에 대한 공감의 정도를 Likert 6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Likert 6점 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홀수 배점에서 나타나는 ‘보통이다’라는 항목이 판단을 보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것을 선택에서 배제하여 공감과 비공감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III.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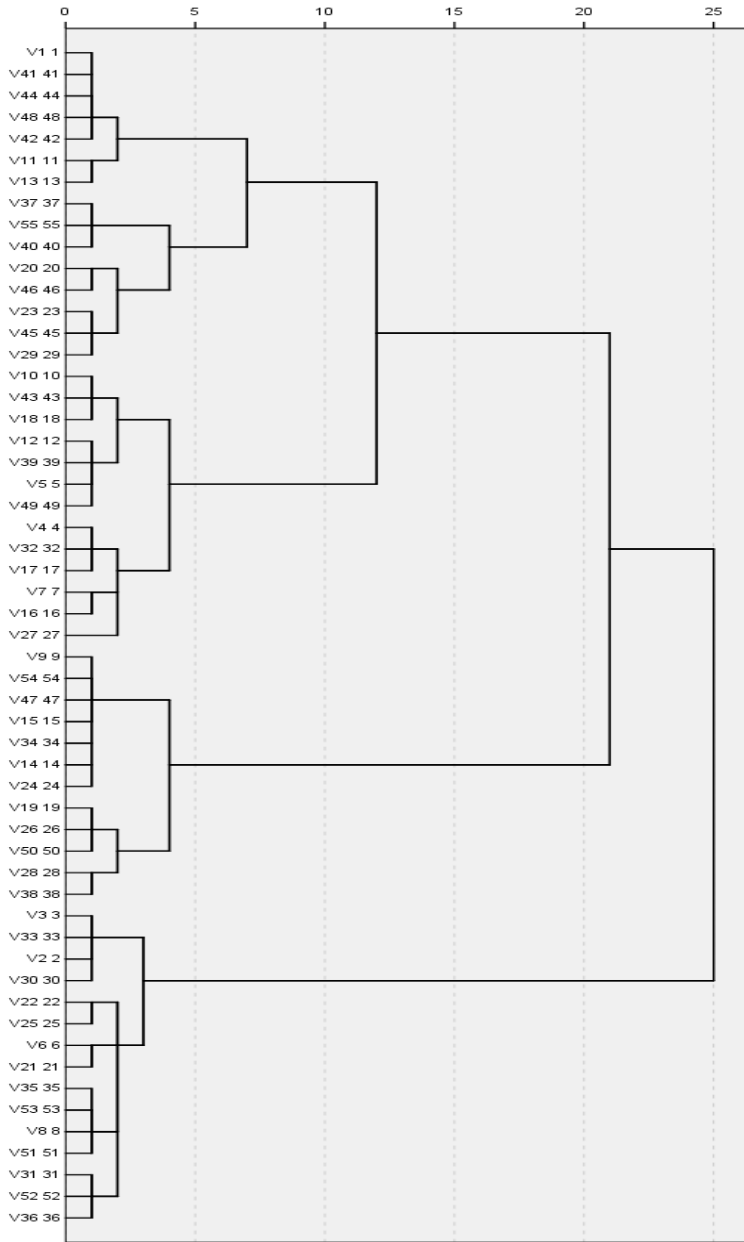
1. 초등학교 영재아동의 반창의성 편향에 대한 개념도

초등학교 영재아동들의 반창의성 편향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얻은 응답 자료를 수집한 결과 78개의 아이디어 진술문이 수집되었다. 수집된 아이디어를 분류하고 통합하여 최종 55개의 진술문으로 정리하였다(<표 2> 참조).

이들 55개의 진술문에 대한 비유사성 평정 자료를 사용하여 다차원 척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2차원 개념도 제작에 적합한 stress 값은 .30이었다. stress 값이란 자료가 가지고 있는 원래 유사성과 다차원 척도법을 적용한 결과 지각도상의 대상들 사이의 거리를 비교함으로써 지각도가 원래 대상 간의 유사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즉, 지각도상의 응답자들이 응답한 대상 간의 상이성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설명하는 값이다(차석빈 외, 2008). 다차원 척도분석 모형에 의하여 설명되지 않는 분산의 불일치 정도로서 대상들 간의 실제 거리와 추정거리 사이의 오차를 의미하며, 이는 0과 1의 사이값을 가지게 된다. 추정거리와 실제거리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0이 되며, stress 값이 작을수록 추정거리의 적합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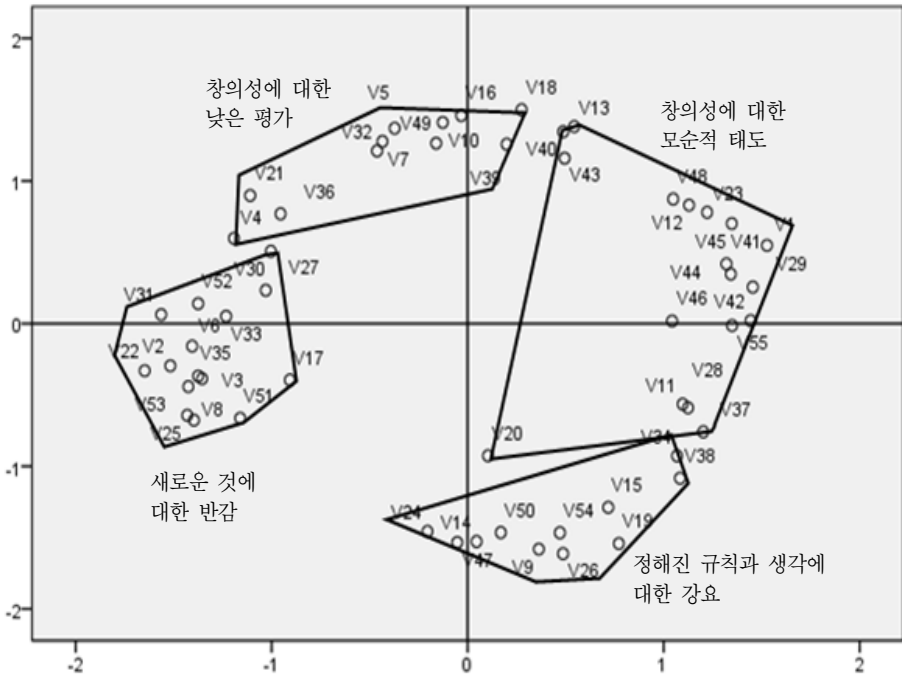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stress 값은 개념도를 위한 다차원 척도분석에 적합한 평균 범위(.205~.365)를 충족시킨다(Gol & Cook, 2004; Kane & Trochim, 2007). 다차원 척도법의 모형 적합도 지수(index of fitness)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알아볼 수 있는 회귀분석의 결정계수와 유사한 RSQ(stress and squared correlation)는 .530으로 중간 정도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다차원 척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좌표에 위치한 개별 진술문들을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해 총 4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때 군집의 수는 덴드로그램을 통해 4개의 범주로 분류하는 것



[그림 2] 초등학교 영재아동들의 반창의성 편향에 대한 인식의 덴드로그램

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계적 군집 분석 결과 도출된 군집에 대한 명명은 좌표 상에 표시된 진술문들의 상대적 위치, 범주에 묶인 진술문 내용과 연구 참여자들이 카드분류 단계에서 기술한 범주명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초등학교 영재아동들의 반창의성 편향에 대한 인식의 텐드로그램과 개념도는 각각 <그림 2>,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초등학교 영재아동들의 반창의성 편향에 대한 인식의 개념도

개념도에 나타난 진술문의 좌표 값을 기초로 위계적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위학교 영재학급 학생들의 재미에 대한 인식의 범주는 4개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범주명은 ‘창의성에 대한 모순적 태도’, 창의성에 대한 낮은 평가’, ‘새로운 것에 대한 반감’, ‘정해진 규칙과 생각에 대한 강요’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영재아동의 반창의성 편향에 관한 인식의 하위범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성에 대한 모순적 태도’ 군집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그렇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일상생활이나 수업에서의 상황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창의성에 대한 낮은 평가’ 군집은 창의성을 발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무시와 야유, 한숨 등의 부정적인 태도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정해진 규칙과 생각에 대한 강요’ 군집은 초등학교 영재아동이 느끼는 생활에서의 규범과 규칙,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공부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편협한 생각 등과 관

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넷째, ‘새로운 것에 대한 반감’ 군집은 새로운 의견이나 방법을 제시하였을 때의 불편함과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2. 반창의성 편향 관련 요인들의 지각된 공감도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영재아동들이 인식을 중심으로 각 사항들에 대한 공감도를 평가하였다. 개념도에서 도출된 총 55개의 진술문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149명이었으며, 그 중 불성실한 설문지 17부를 제외한 13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각 진술문을 어느 정도로 공감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6점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6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평균값을 구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공감도를 살펴보았다. 이때, Likert 6점 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홀수 배점에서 나타나게 되는 판단을 보류하는 ‘보통이다’라는 선택을 배제하여 공감과 비공감에 대한 의사표시를 보다 명확하게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한 각 진술문의 평균값은 2.20~5.16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진술문에 대한 전체 평균값은 3.68로 나타났다.

총 55개의 설문문항에서 반창의성 편향에 대해 초등학교 영재아동들이 인식하는 공감 정도를 살펴보면 ‘선생님은 수업을 받을 때는 항상 바른 자세로 앉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가 가장 높은 평균값($M=5.16$)으로, ‘수업시간에 질문하는 친구들이 나는 가끔 이상하게 보인다.’가 가장 낮은 평균값($M=2.2$)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창의성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꼭~해야 한다고 규칙을 정해 놓는다’ ($M=4.52$), ‘어른들은 공부를 할 때 나만의 답이 아니라 정해진 답을 쓰라고 하신다’ ($M=4.51$), ‘세상에는 원래 그런 것이 너무 많다’ ($M=4.71$) 등의 진술문도 상대적으로 높은 공감을 받았다. 구체적인 범주별 진술문 내용과 공감도 평균은 <표 2>와 같다.

<표 2> 초등학교 영재아동이 인식하는 반창의성 편향 관련 요인들의 지각된 공감도 (n=132)

범주 (문항수)	진술문	공감도 평균 M
	1. 부모님께 어떤 질문을 하면 핸드폰으로 검색해보라고 말씀하신다.	3.30
	11. 어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그건 ‘원래 그런 것’이라고 대답하신다.	3.66
	13. 어른들에게 질문을 하면 ‘말이 많다, 질문 좀 그만해라.’라고 하신다.	3.23
	20. 어른들은 어른들의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강요하고 새로운 생각을 억제한다.	3.98
	23. 선생님은 창의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질문은 잘 받지 않는다.	3.08
창의 성에 대한	29. 선생님께서는 생각해보라고 하시고 몇 초 후에 바로 답을 말씀하신다.	3.62
	37. 학교에서는 창의성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꼭 ~해야 한다.’고 규칙을 정해 놓는다.	4.52
모순적 태도 (15)	40. 창의적인 삶이 좋은 삶이라고 하면서 정작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않게 산다.	4.24
	41. 어른들이 스스로 찾아서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알려주기 귀찮아서인 것 같다.	3.88
	42. 공부와 관련되지 않은 질문을 하면 부모님께 꾸중을 듣는다.	2.83
	44. 어른들은 책을 읽다가 궁금한 것을 여쭙어보면 귀찮아하신다.	3.14
	45. 부모님은 항상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하시면서 여쭙어보면 바쁘다고 하신다.	3.17

범주 (문항수)	진술문	공감도 평균 <i>M</i>
	46. 부모님들은 우리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보다는 직접 방법이나 답을 알려준다.	3.21
	48. 어른들에게 사소하지만 좀 더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하면 어처구니없어 하신다.	3.24
	55. 사람들은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창의적인 주관식 답은 틀렸다고 한다.	4.20
소계		3.55
창의 성에 대한 낮은 평가 (13)	4. 내가 호기심에 음식에 이것저것 넣어보려고 하면 어른들은 장난치지 말라고 하신다.	3.81
	5.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다.	2.70
	7. 누군가 과학적 수학적 현상에 대한 의견을 내면 주변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무시한다.	2.86
	10. 나는 우리 반 친구과 창의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화를 내신다.	2.82
	12. 선생님은 창의성 있는 친구들보다 말 잘 듣는 친구들을 좋아하는 것 같다.	4.08
	16. 수업시간에 질문을 자주하는 친구가 질문을 또 하면 반 친구들은 왜 또 저러냐는 눈빛으로 그 친구를 바라본다.	3.67
	17. 내가 무엇인가 깊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멍하게 있지 말라고 한다.	4.10
	18. 누군가가 수업시간에 창의적인 질문을 하면 친구들이 야유한다.	3.02
	27. 수업시간에 질문하는 친구들이 나는 가끔 이상하게 보인다.	2.20
	32. 내가 전자기기 같은 물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면 물건을 망가트린다고 혼난다.	3.72
	39.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만든 작품을 평범하게 만든 작품보다 더 낮게 평가한다.	3.52
	43. 나는 창의적인 질문을 했는데 부모님은 한숨을 쉬신다.	2.78
	49. 사람을 뽑을 때 개성 있고 창의적인 사람보다 무난한 사람을 뽑는다.	3.61
소계		3.30
정해진 규칙과 생각에 대한 강요 (12)	9. 시험을 볼 때는 새로운 생각보다는 그냥 교과서에 나온 대로 써야 정답으로 인정받는다.	4.47
	14. 발표를 할 때는 규칙을 지켜야 해서 내 의견을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88
	15. 나는 좀 다르게 쓰고 싶은데 꼭 정해진 방법으로 글을 써야한다.	3.86
	19. 어른들은 공부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한다.	4.50
	24. 내가 새로운 방법으로 조립을 하려고 하면 설명서대로 하라고 한다.	3.77
	26. 선생님은 수업을 받을 때는 항상 바른 자세로 앉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5.16
	28. 사람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은 의심하지 않고 다 맞다고 생각한다.	3.69
	34. 어른들은 공부를 할 때 나만의 답이 아니라 정해진 답을 쓰라고 하신다.	4.51
	38. 사람들이 관심 분야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지 대학에 쉽게 가기 위해서인 것 같다.	4.21
	47. 어른들은 수학문제를 풀 때 내가 푸는 방법 말고 답지에 나온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 원하신다.	4.12
50. 세상에는 원래 그런 것이 너무 많다.	4.71	
54. 어른들은 문제를 풀 때 모범답안과 다르면 지우거나 다시 쓰라고 한다.	4.08	
소계		4.16

범주 (문항수)	진술문	공감도 평균 M
새로운 것에 대한 반감 (15)	2. 나는 친구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새로운 의견을 내는 것이 꺼려진다.	2.57
	3.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꺼려한다.	2.29
	6. 사람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항상 불가능한 점부터 생각한다.	3.68
	8. 친구들과 놀 때 게임 규칙을 바꾸자고 하면 친구들은 하던 대로 하자고 한다.	3.61
	21. 누군가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면 친구들은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 좋다고 한다.	4.06
	22. 사람들은 길을 갈 때 새로운 길로 가지 않고 아는 길로만 가려고 한다.	4.43
	25. 사람들은 위험한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안전한 것을 선호한다.	4.97
	30. 내가 친구들에게 새로운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지루하니 그만하라고 한다.	3.36
	31. 과학실험을 할 때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하면 모둠친구들이 반대한다.	4.05
	33. 내가 새로운 것을 얘기하면 어른들은 그런 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쓸데없다고 하신다.	3.61
	35. 사람들은 조금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은 불편하게 생각한다.	4.37
	36. 사람들은 좋은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취급을 한다.	3.68
	51.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지금까지 있었던 기능과 모양은 거의 바꾸지 않고 비슷하게 만든다.	4.23
	52.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화를 낸다.	3.50
	53.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것만 좋아하고 그 이상의 새로움은 원하지 않고 불편해 한다.	4.02
소계		3.76
전체		3.68

반창의성 편향에 대한 초등학교 영재아동들의 인식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범주인 ‘창의성에 대한 모순적 태도’에서는 ‘학교에서는 창의성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꼭 ~해야 한다.’고 규칙을 정해놓는다.’($M=4.52$)를 가장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인 삶이 좋은 삶이라고 하면서 정작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않게 산다.’($M=4.24$)와 ‘사람들은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창의적인 주관식 답은 틀렸다고 한다.’($M=4.20$)는 그 다음으로 높은 공감도를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공부와 관련되지 않은 질문을 하면 부모님께 꾸중을 듣는다.’가 가장 낮은 평균값($M=2.83$)을 보이고 ‘선생님은 창의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질문은 잘 받지 않는다.’($M=3.08$)가 그 뒤를 따랐다.

두 번째 범주인 ‘창의성에 대한 낮은 평가’에서는 ‘내가 무언가 깊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멍하게 있지 말라고 한다.’($M=4.10$)와 ‘선생님은 창의성 있는 친구들보다 말 잘 듣는 친구들을 좋아하는 것 같다.’($M=4.08$)를 가장 공감하고 있었다. ‘수업시간에 질문 하는 친구들이 나는 가끔 이상하게 보인다.’($M=2.20$),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다.’($M=2.70$), ‘나는 창의적인 질문을 했는데 부모님은 한숨을 쉬신다.’($M=2.78$)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공감도를 나타냈다.

세 번째 범주인 ‘정해진 규칙과 생각에 대한 강요’는 다른 범주들에 비하여 영재아동의 공감의 정도가 높은 것($M=4.16$)으로 드러났다. ‘선생님은 수업을 받을 때는 항상 바른 자세로 앉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를($M=5.16$) 가장 공감하고 있으며 ‘세상에는 원래 그런 것이 너무 많다.’($M=4.71$) ‘어른들은 공부를 할 때 나만의 답이 아니라 정해진 답을 쓰라고 하신다.’($M=4.51$), ‘어른들은 공부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한다.’($M=4.50$), ‘시험을 볼 때는 새로운 생각보다는 그냥 교과서에 나온 대로 써야 정답으로 인정받는다.’($M=4.47$)의 진술문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감도를 나타냈다.

네 번째 범주인 ‘새로운 것에 대한 반감’에서는 ‘사람들은 위험한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안전한 것을 선호한다.’($M=4.97$)를 가장 공감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길을 갈 때 새로운 길로 가지 않고 아는 길로만 가려고 한다.’($M=4.43$)와 ‘사람들은 조금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은 불편하게 생각한다.’($M=4.37$)도 상대적으로 높게 공감하고 있었다. ‘나는 친구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새로운 의견을 내는 것이 꺼려진다.’($M=2.57$)와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꺼려한다.’($M=2.29$)는 상대적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친구들과 놀 때 게임규칙을 바꾸자고 하면 친구들은 하던 대로 하자고 한다.’($M=3.61$)나 ‘누군가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면 친구들은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 좋다고 한다.’($M=4.06$)의 공감 정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표 2>에 제시되어 있듯이 ‘정해진 규칙과 생각에 대한 강요’($M=4.16$), ‘새로운 것에 대한 반감’($M=3.68$)의 범주에 대한 공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고 ‘창의성에 대한 모순적 태도’($M=3.55$)와 ‘창의성에 대한 낮은 평가’($M=3.30$) 범주는 중간 수준의 공감도를 보였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영재아동이 인식하는 반창의성 편향에 대하여 개념도를 조사하고 공감하는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최근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반창의성 편향이 초등학교 영재아동들의 삶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와 사회에서 사람들이 창의성을 진정으로 열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창의적인 사람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초등학교 영재아동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초등학교 영재아동은 생활하면서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에 만연해있는 창의성에 대한 모순적 태도와 창의성에 대한 낮은 평가, 정해진 규칙과 생각에 대한 강요, 새로운 것에 대한 반감 등을 통해서 반창의성 편향에 대해 인식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반창의성 편향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창의성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방법이나 기법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만을 모색하였지만 이제부터는 그와 동시에 창의성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창의

성에 반하는 우리의 암묵적, 무의식적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반창의성 편향을 극복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반창의성 편향은 특히 ‘창의성에 대한 모순적 태도’나 ‘새로운 것에 대한 반감’ 범주에서 잘 설명된다. ‘사람들은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창의적인 주관식 답은 틀렸다고 한다.’거나 ‘창의적인 삶이 좋은 삶이라고 하면서 정작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않게 산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것만 좋아하고 그 이상의 새로움은 원하지 않고 불편해 한다.’ 등의 공감도가 높은 것을 보면 창의성에 반하는 우리의 암묵적이고 무의식적인 사고방식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 교실과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창의성에 대한 불편하고 거부적인 인식과 태도 극복이 매번 표어처럼 언급되고 있는 창의력 계발에 선행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창의력 계발과 창의사회 구현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또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창의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창의풍토로의 변화도 모색해야 한다. 개인의 창의성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과 계속된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발현된다(이정모, 2011). ‘창의성에 대한 낮은 평가’ 범주의 ‘사람을 뽑을 때 개성 있고 창의적인 사람보다 무난한 사람을 뽑는다.’진술문의 공감도를 통해 우리는 개성 있고 창의적인 사람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직에 잘 적응하고 순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있다는 영재아동들의 암묵적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창의성이 개인의 능력이라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계속된 협동적, 문화적 상호작용 행위에 의해 개인을 통해 발현되는 사회적 창의성이라는 것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해진 규칙과 생각에 대한 강요’ 범주의 ‘시험을 볼 때는 새로운 생각보다는 그냥 교과서에 나온 대로 써야 정답으로 인정받는다.’나 ‘어른들은 문제를 풀 때 모범답안과 다르면 지우거나 다시 쓰라고 한다.’의 공감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변의 고정관념과 편견, 강요 등으로 인해 창의적인 생각을 펼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결국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들에 앞서서 창의성을 발현시키기 위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런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인 분위기를 창의풍토로 변화, 정착시키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창의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도 개선이 필요하다. ‘창의성에 대한 모순적 태도’ 범주의 ‘사람들은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창의적인 주관식 답은 틀렸다고 한다.’의 진술문이나 ‘창의성에 대한 낮은 평가’ 범주의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만든 작품을 평범하게 만든 작품보다 더 낮게 평가한다.’의 진술문들은 초등학교 영재아동들조차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제대로 된 기준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창의성 관련 교육의 정책 및 교사의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다양한 교육 개혁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육은 교과서의 정답만을 강요하는 평가 위주의 교육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본 연구의 초등 영재아동들은 관련된 진술문을 통해 이를 지지하고 있다. 정답을 가려내는 평가를 위한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눈에 보이는 창의성뿐만 아니라 잠재된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보다 역동적 맥락의 창의성 평가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교사나 부모 등 어른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과 행동이 아이들의 창의적 태도와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다시 한번 인식되어야 한다. 교사의 태도는 학생들의 수행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Westby & Dawson, 1995). 창의성은 불안과 불확실함을 동반하므로 모호함을 참아내고 위험을 감수하며 실패를 거듭해야 비로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창의적인 생각을 좋아하지 않는 교사의 태도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행동을 없애고, 학생들이 창의성을 유지하는 것 대신에 교사의 요구에 적응하고 교사와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한다. ‘창의성에 대한 모순적 태도’ 범주에서 ‘어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그건 ‘원래 그런 것’이라고 대답하신다.’, ‘어른들에게 질문을 하면 ‘말이 많다, 질문 좀 그만해라’라고 하신다.’, ‘어른들은 어른들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강요하고 새로운 생각을 억제한다.’라고 인식하는 것, ‘정해진 규칙과 생각에 대한 강요’ 범주의 ‘선생님은 수업을 받을 때는 항상 바른 자세로 앉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어른들은 수학문제를 풀 때 내가 푸는 방법 말고 답지에 나온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 원하신다.’ 등의 진술문에 나타난 영재아동의 인식은 교사가 창의성을 기르는 것이 교육적으로 중요한 목표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는 분위기와 환경을 암묵적으로 조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창의성교육의 대가 영국의 Ken Robinson은 “실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에게에는 절대로 새롭고 특별한 일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교육에서 실수와 실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아동들의 진술문을 통해 우리의 교육이 아이들을 실수와 실패를 통해 성장하게하기 보다 실수를 두려워하도록 만들거나 실패를 경험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끝으로 반창의성 편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영재아동은 단위학교 영재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연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영재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일반아동들이 인식하는 반창의성 편향을 조사하고 초등 영재학생들이 인식하는 반창의성의 편향이 일반학급과 영재학급에서 양적, 질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영재 및 일반학생들이 인식하는 반창의성 편향에 대해서도 탐색하고 반창의성 편향의 내용 및 정도가 발달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영재아동이 인식하는 반창의성 편향에 대한 개념도를 작성하고 공감 정도를 알아보는 것에 머물렀으나, 반창의성 편향 척도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 및 사회에서 나타나는 반창의성 편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261호).

- 김순남, 이병환, 황향숙 (2003). 창의성 교육 실태 분석과 교육 정책적 과제. **중등교육연구**, 51(2), 41-68.
- 성은현, 한순미, 하주현, 이정규, 류형선, 한윤영, 박병기 (2008). 한국적 창의성과 창의적 환경에 대한 대학생들의 암묵적 이론. **한국심리학회**, 14(1), 367-390.
- 요로다케시 (2003). **바보의 벽**. 서울: 재인.
- 이정모 (2011). **한국교육 미래 비전: 창의성 개념의 21세기적 재구성**. 서울: 학지사.
- 이춘근 (2007). **이런 상사가 창의성을 죽인다**. LG경제연구원 보고서.
- 임선하 (2007). 창의성 교육: 반성적 접근. **창조교육논총**, 9, 55-86.
- 전경원 (2000). 창의성 저해 요인 조사연구: 유아교육과 여학생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 연구**, 5(1), 163-180.
- 조연순, 정지은(2012). 국내 창의성 교육 연구 동향 분석: 창의성의 범주 및 수준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연구**, 22(2), 333-352.
- 차석빈, 김홍범, 오홍철, 윤지환, 김우곤 (2008). **사례를 통해 본 다변량 분석의 이해**. 서울: 백산출판사.
- 최석민 (2006). 초등학교 창의성 교육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초등교육연구**, 19(2), 1-21.
- 최윤정, 김계현 (2007). 고학력 기혼여성의 진로단절 위기 경험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8(3), 1031-1045.
- 최한나, 김삼화, 김창대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또래관계 역량. **상담학연구**, 9(1), 181-197.
- 최한나, 김창대 (2008). 좋은 슈퍼비전 관계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인식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2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a).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I 2010-2.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b). **창의성 교육 국제비교 연구**. 연구보고 CRO 2010-3.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c). **창의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C 2010-3.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중등학교 교육 개선 연구**. 연구보고 RRC 2011-2.
- 한기순(2005). 창의성 영역문제의 탐색 및 재접근. **영재교육연구**, 15(2), 1-34.
- 한기순, 김홍희 (2011).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의 개념도. **영재와 영재교육**, 10(1), 49-72.
- 한기순, 유경훈 (2013). 우리는 진정 창의성을 원하는가?: 반창의성 편향에 관한 담론. **창의력교육연구** 13(3), 53-70.
- Cropley, A. (2009). Teachers' antipathy to creative students: some implications for teacher training. *Baltic Journal of Psychology*, 10, 86-94.
- Evans, J (1991). *Creativity thinking in the decision and management science*. OH: South Western Publishing Co.

- Gol, A. R., & Cook, S. W. (2004). Exploring the underlying dimensions of coping: A concept mapping approa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155-171.
- Johnsen, J. A., Biegel, D. E., & Shafran, R. (2000). Concept mapping in mental health uses and adaptation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 67-75.
- Kane, M., & Trochim, W. M. K.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
- Kegan, R., & Lahey, L. L. (2001). The Real Reason People Won't Change. *Harvard Business Review, Nov*, 1-10.
- Mueller, J. S., Concalo, J., & Kamder, D. (2011). Recognizing creative leadership: Can creative idea expression negatively relate to perceptions of leadership potentia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 494-498.
- Mueller, J. S., Melwani, S., & Goncalo, J. (2012). The bias against creativity: why people desire yet reject creative ideas. *Psychological Science, 21*(1), 13-17.
- Paulson, B. L., & Worth, M. (2002). Counseling for suicide: Client percep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 86-93.
- Renzulli, J. S. (1978). What makes giftedness? *Phi Delta Kappa, 60*, 180-184.
- Runco, M. A. (1992) Creative thinking in the fifth grade. In J. F. Wakefield (Ed), *Creative thinking: Problem-solving skills and the arts orientation* (pp. 13-26). Norwood, NJ: Ablex.
- Runco, M. A. (2010). Creativity has no dark side. In D. H. Cropley, A. J. Cropley, J. C. Kaufman & M. A. Runco (Eds.), *The dark side of creativity*.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nco, M. A., & Pritzker, S. T. (Eds). (1999). *Encyclopedia of creativity* Vol. 1.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taw, B. M. (1995). Why no one really wants creativity. In C. Ford, & D. A. Gioia (Eds.), *Creative action in organizations: Ivory tower visions and real world voices*.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 Inc.
- Sternberg, R. J., & Lubart, T. I. (1995). *Defying the crowd: Cultivating creativity in a culture of conformity*. NY: Free Press.
- Trochim, W. M. K. (1989). An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2*, 1-16.
- Westby, E. L., & Dawson, V. L. (1995). Creativity: Asset or burden in the classroom? *Creativity Research Journal, 8*(1), 1-10.

= Abstract =

Are We Really Open to Creativity?: Elementary Gifted Students' Perceptions on Anti-Creativity Bias

Taehee Le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i-Soon Ha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elementary gifted students' perceptions on bias against creativity utilizing concept mapping approach. Twelve elementary gifted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group brainstorming and produced 55 final statements. Based on these statements, the multi-dimensional scale and hierarchial cluster analysis using dissimilarity matrix were performed. Average stress value was .30 which is appropriate for a two-dimensional concept mapping study. In addition, a questionnaire survey using likert 6 points scale was carried out targeting 132 elementary gifted students to analyze the degree of sympathy on their anti-creativity bias perception. The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four categories were concluded dividing gifted students' perceptions on bias against creativity from the hierarchial cluster analysis with X-Y coordinate matrix, these were 'Contradictory attitudes to creativity', 'Low evaluation for creativity', 'Forced to predetermined rules and ideas', and 'Aversion to new things'. Second, elementary gifted students were sympathetic to the order 'Forced to predetermined rules and ideas'(M=4.16), 'Aversion to new things'(M=3.68), 'Contradictory attitudes to creativity'(M=3.55) and 'Low evaluation for creativity'(M=3.30).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alyze and categorize various relevant factors related to elementary gifted students' perceptions on bias against creativity. Implications of the study related to the present and future creative education were discussed in depth.

Key Words: elementary gifted student, bias against creativity, concept mapping,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creativity

1차 원고접수: 2015년 3월 30일
수정원고접수: 2015년 5월 4일
최종게재결정: 2015년 5월 4일